

상업영화 <완득이>를 활용한 고등학생용 상호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디지털 영상매체의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Development of Intercultural Educational Programs for High School Students Utilizing the Korean Commercial Movie *Wandeugi*: An Application Plan of Digital Image Media

김형민¹⁾, 이재호²⁾

Hyeong Min Kim¹, Zae-Ho Lie²

요 약

본 논문은 상업영화 <완득이>를 활용한 고등학생용 상호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실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 실례를 통해 디지털 영상매체 중 하나인 상업영화가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을 위한 상호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유용하면서도 중요한 교수·학습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특히 상업영화를 활용하여 개발한 상호문화교육 프로그램은 학습자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집중력을 높이고, 학습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고, 간접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영상매체를 활용하여 상호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작업은 교수자에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한다. 이는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교수자들이 개발한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다면, 교수자들은 수업 준비에 따른 시간적·심리적 부담을 줄여 사회통합을 위한 상호문화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디지털 영상매체, 상호문화교육 프로그램, 완득이, 인권, 자아정체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give concrete instances for the intercultural educational program for the high school students using the commercial movie *Wandeugi*. Through the examples we would like to show that the commercial film as one type of the digital image media is expected to be a very useful and important teaching-learning tool of intercultural educational program for the social integration in multicultural societies.

1) Department European Language and Cultures, Sogang Univ., 35 Baekbeom-ro, Mapo-gu, Seoul, 04107, Korea
e-mail: kimhyeongmin@hotmail.com (First author)

2) Department German Language and Literature, Soongsil Univ., 369 Sangdo-ro, Dongjak-gu, Seoul, 06978, Korea
e-mail: zhlie@ssu.ac.kr (Corresponding author)

Received(November 10.2017), Review (December 15.2017), Accepted(December 31.2017)

Above all, intercultural educational programs utilizing commercial films are proved in some researches to arouse learners' interest, improve their concentration on learning contents, to reduce their psychological burden of learning and provide indirect learning. It should not, however, be overlooked that instructors have to invest much time and effort to develop intercultural educational programs using digital image media. For this reason the development of intercultural teaching-learning programs can be a big burden to instructors. It is, therefore, reasonable that if the specialists for intercultural education have a channel for sharing intercultural teaching-learning programs they can design more efficiently the intercultural educational program for the social integration through the reduction of temporal and psychological burden of instructors.

Keyword: digital image media, intercultural educational program, Wandeugi, human rights, self-identity

1. 들어가는 말

오늘날 한국 사회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다문화사회 multicultural society로 전환하고 있다. 그런데도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대처하기 위한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노력은 서구의 선진 다문화사회와 비교하여 보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다양한 인종적·언어적·종교적·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여러 이해관계 속에서 같은 지리적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상호이해 mutual understanding와 상호소통 mutual communication과 상호존중 mutual respect의 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화적 갈등과 충돌이 마치 시한폭탄처럼 한국 사회 곳곳에 내재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다문화상황에서 발생하는 또는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갈등과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사회통합을 이룩하려는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선진 다문화사회가 사회통합을 위해 기울이는 노력과 비교하여 볼 때, 한국 사회의 사회통합 노력은 아직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 영상매체 digital image media를 활용한 고등학생용 사회통합 상호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실례를 제시하는데 있다. 이는 학습대상자인 고등학생들이 '한국적 다문화사회'의 상황에서 문화갈등 cultural conflict과 문화충돌 cultural collision로 인해 발생 가능한 혹은 이미 발생한 크고 작은 사회문화적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인식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본 논문이 한국적 다문화사회에서 사회통합을 위해 미세한 파장이나마 일으킬 것이라고 본 연구자들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본 연구가 지향하는 방향은 '문화상대주의 cultural relativism'와 '상호문화주의

interculturalism'의 관점이다. 한편 본 연구는 사회통합 상호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디지털 영상매체, 그 중에서도 현대 사회의 대표적인 서사텍스트 narrative text이자 학습자에게 친숙한 영화를 활용한다.

본 연구는 2008년 출간된 김려령의 소설 『완득이』를 바탕으로 영화로 제작되어 2011년 10월 개봉된 이한 감독의 <완득이>를 활용하여 고등학생용 자아정체성 상호문화교육 프로그램과 고등학생용 인권 상호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교수·학습 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 '한국적 다문화상황'

우리는 21세기를 세계화시대 the age of globalization이며 "이주의 시대 the age of migration"(Castles and Miller 2009)이자 다양한 문화권의 구성원들이 동일 공간에서 공존하는 다문화시대 multicultural age라고 지칭한다. 21세기를 이와 같이 지칭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무엇보다도 전 지구적으로 진행된 자본과 인력의 활발한 이동임에 틀림없다.[1]

이렇듯 21세기의 세계는 인류의 역사에 있어 가장 활발한 인적·물적 이동을 경험하고 있다. 그로 인해 오늘날의 세계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종던 싫던 혹은 원하던 원하지 않던, 더불어 사는 또는 더불어 살아야 하는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지구상에 소위 '단일문화 monoculture'에 속하는 구성원만으로 이루어진 사회문화적 공동체는 극히 드물 것이며, 아니 존재하지 않을지 모른다. 다시 말하면, 21세기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사회문화적 공동체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서로 다른 문화권 출신의 다양한 인종들과 민족들이 특정한 동일 공간 안에서 공존하면서 공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 지구적인 사회 현상이 한국사회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서구의 많은 선진 다문화사회와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도 교통과 통신 수단의 발달, 정보와 지식의 교류 증대,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 등으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2015년 12월 유엔경제사회국 UNDESA =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s and Social Affairs 산하 인구분과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 30일 기준으로 전 세계인구는 약 73억 4,947만 명이고, 그 중 약 2억 4,370만 명이 자신의 출생국가가 아닌 국가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다(International Migration Report 2015: Highlights 2016, 28 참고).[2] 이 수치는 전 세계 인구의 약 3.3%가 자신들에게 익숙한 사회문화적 공간을 떠나 낯선 문화권으로 이주했음을 보여준다.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보도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 2015년 12월호」에 따르면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총 외국인의 수는 189만 9,519명이었고, 안전행정부의 집계에 따르면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총인구는 5,152만 9,338명이었다. 따라서 2015년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 총인구 대비 국내 체류외국인 비율은 약 3.69%이었다.[3] 이 수치는 세계인구 대비 국제이주자의 비율 약 3.3%보다는 약간 높지만, OECD 회원국의 총 인구 대비 국제이주자의 비율 약 12%에 비하면 현저히 낮다.

아래 [표 1]은 2000년과 2015년에 OECD 회원국의 총 국제이주자의 수와 대한민국의 총 체류 외국인의 수를 보여준다.

[표 1] OECD 회원국의 총 국제이주자와 대한민국의 총 체류외국인

[Table 1] Total International Migrants in the OECD Member Countries and Total Foreign Residents in South-Korea

연도	OECD 회원국의 총 국제이주자 (천 명)	대한민국의 총 체류외국인 (천 명)
2000	84,061	491
2015	123,864	1,900

※ 백 명 단위에서 반올림 함.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OECD 회원국의 총 국제이주자의 수는 2000년에 약 8,406만 1,000명에서 2015년에 약 1억 2,386만 4,000명으로 증가하여, 약 47.35%의 증가율을 나타낸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경우, 총 체류외국인의 수는 2000년에 약 49만 1,000명에서 2015년에 약 190만 명으로 증가하여, 약 286.97%의 증가율을 나타낸다. 이 통계수치는 2000년대 이후 대한민국의 외국인 이주자의 증가율이 OECD 회원국의 증가율보다 무려 6배 이상 높음을 보여준다. 2015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총 인구 대비 국제이주자의 비율은 OECD 회원국의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나, 2000~2015년 사이 대한민국으로 이주해온 외국인의 증가율은 OECD 회원국의 평균 증가율을 월등히 넘어선다. 이는 한국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다가서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한민국은 오랜 세월 동안 '단일민족'과 '단일문화'라는 의식에 기반을 둔 뿌리 깊은 '순혈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로 인해 전통적인 한국 사회는 이질적 타문화의 유입을 단순히 하나의 문화적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인종적·문화적 차별을 당연시하려는 경향까지

도 보였다. 그러나 최근 한국 사회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주민의 유입으로 인해 인종적·문화적 다양성을 경험하고 있으며,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한국 사회로 이주해 오는 타문화권 이주민으로는 이주근로자,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외국인 유학생, 외국상사 주재원, 외교관, 재외동포, 외국인자녀, 북한이탈주민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한국 사회를 다문화사회로 이끄는 주요 동인으로는 산업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단기간 거주하는 저임금 이주노동자와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하는 여성 결혼이민자이다. 어느덧 한국 사회의 주류문화 구성원들은 '다문화',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자녀', '다문화사회', '다문화정책' 등과 같은 용어에 친숙해 졌으며, 일상생활에서 타문화권 구성원들과의 접촉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렇듯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다양한 인종적·언어적·종교적·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같은 시간적·지리적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상호이해와 상호소통과 상호존중의 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화적 갈등이 표출되고 사회문화적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한국적 다문화상황에서 나타난 사회문화적 갈등과 충돌을 최소화시키면서 사회통합에 도달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학계는 학계대로 타문화권 구성원의 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사회통합을 위한 방안과 정책을 제시하고자 학문적 고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 다문화사회가 사회통합 social integration을 위해 기울이는 노력과 비교하여 평가해 볼 때, 한국 사회의 사회통합 노력은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하다. 한편 교육의 현실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유아교육기관,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의 일선 교육기관에서 실제로 행해지는 사회통합을 위한 상호문화교육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은 걸음마 단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미 개발된 상호문화교육 교수·학습 프로그램들이 실제 수업에 적용될 시, 다양한 교수·학습 매체들이 매우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바로 여기에서 본 연구가 출발한다.

3. 상호문화교육의 교수·학습 도구로서의 디지털 영상매체

"인류문명에 패러다임의 전환 paradigm shift을 가져온 디지털혁명 digital revolution은 21세기를 지식·정보화시대라고도 불리게 만들었다."(진상범, 김형민 2014, 13)[4] 특히 20세기 중반 이래 디지털 정보통신의 기술 및 교통수단의 비약적인 발전은 시공간의 압축현상을 몰고 왔으며, 우리 인류에게 국경이란 공간적·지리적 경계를 초월하여 마치 '하나의 공통 생활양식'을 폭넓게 수

용하게 하고 있다. 지식·정보화시대에서는 무엇보다도 디지털 정보통신 관련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사회 전반에서 정보와 지식의 보편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정보와 지식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활용하는 방안의 모색이 강조된다.

과학기술문명의 진보에 따른 디지털방식의 정보처리 과정은 인류에게 “입체적, 통합적, 쌍방향적 의사소통 방식”(진상범, 김형민 2014, 13)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4] 이와 같은 소통방식은 인류의 인식과정과 인식방법에 너무나 지대한 영향을 미쳐, 오늘날에는 인류가 디지털방식에 기반을 둔 소통방식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우려까지도 낳고 있다. 특히 오늘날의 주요 학습주체들은 ‘아날로그 신호에 기반을 둔 추상적인 문자매체’보다는 ‘디지털 신호에 기반을 둔 구체적인 영상매체’를 더 선호한다(정영근 2003, 210 참고).[5] 그래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이란 관점에서 바라보면, 디지털 영상매체를 교수·학습 방법의 도구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디지털 영상매체는 아날로그 문자매체보다 훨씬 더 신속하고 보다 더 집중적으로 수용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카메라는 특정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줄 수 있다. 이를 통해 전달자는 수용자를 의도한 부분에 보다 더 집중하도록 만들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디지털 영상매체의 큰 장점 중 하나이다. 다시 말해 디지털 영상매체는 특정 주제를 확실하게 부각시키고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영상매체는 감각적으로 정보를 제시하기 때문에 생생한 현장감을 주며 그만큼 전달력이 높아진다. 한편 디지털 영상매체를 기반으로 한 시청각 텍스트는 집단교육이 가능하다. 그것은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사람들에게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는 경제성을 지닌다. 디지털 영상매체는 문자와 소리와 영상으로 복합적인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영상매체는 문자매체가 전달할 수 없는 비언어적인 정보도 무리 없이 전달할 수 있다. 그래서 디지털 영상매체는 시각적인 요소와 청각적인 요소를 동시에 사용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준다. 또한 디지털 영상매체는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거나 미처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것을 문자매체보다 생생하고 직접적으로 알려 준다. 이런 시각에서 바라보면, “디지털 영상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이 문자 위주의 텍스트에만 의존하는 수업보다 학습자들에게 흥미를 더 유발하고, 집중도를 더 높이며, 수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더 많이 주고, 보다 폭 넓은 간접 경험의 기회를 제공”(진상범, 김형민 2014, 13)할 수 있을 것이다.[4]

영화, 애니메이션, TV 드라마, 다큐멘터리 필름 등과 같은 디지털 영상콘텐츠는 오늘날 매우 대중적이며, 현대인이 선호하는 서사 텍스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사적 영상콘텐츠를 활용한 교

수·학습 교육프로그램은 학습자가 학습에 갖는 심리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교육현장에서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없는 학습자에게 간접적인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학습자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교수·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영상콘텐츠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현실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재현하면서도, 정의적·인지적·심리적 측면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디지털 영상콘텐츠는 학습자가 정의적 행동과 인지적 행동을 내면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유기적 교수·학습매체로 활용될 가능성이 많다(김형민, 조창현 2014, 275 참고).[6]

언어는 문화의 산물이다. 그래서 특정 문화권의 언어로 타문화를 설명하는 일은 본질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문화, 특히 타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매체를 보완할 수 있는 여타의 다른 매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영화, 애니메이션, TV 드라마, 다큐멘터리 필름과 같은 디지털 영상매체를 활용한 시청각 텍스트가 훌륭한 보완 매체가 될 수 있다. 서사적 영상텍스트는 수용자가 스스로 관찰하고 느낄 수 있는 디지털 영상콘텐츠이기 때문이다. 특정 디지털 영상콘텐츠는 사·공간적 제약 없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타자의 삶과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안목을 넓혀줄 수 있으며, 그를 통해 우리 자신의 삶과 문화에 대한 숙고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더 나아가 디지털 영상콘텐츠는 문화갈등과 문화충돌이 뇌관처럼 잠재한 다문화상황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교수·학습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 훌륭한 소재를 제공할 수 있다.

21세기의 학습주체들은 “아날로그 신호로 표현되는 문자에 친화적인 자아보다는 디지털 신호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상에 보다 친밀한 자아”(이종훈 2004, 199)이다.[7] 이는 교육현장에서 디지털 신호에 기반을 둔 영화, 애니메이션, TV 드라마, 다큐멘터리 필름 등의 서사텍스트를 교수·학습 매체로 적극 활용해야 함을 암시적으로 시사해 준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인 상호문화교육을 위해 디지털 영상매체를 활용한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에 보다 더 많은 역량이 집중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하겠다(김형민, 조창현 2014, 284 참고).[6]

본 연구가 고등학생용 사회통합을 위한 상호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활용할 디지털 영상콘텐츠는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서사텍스트이자 학습자에게 친숙한 영화이다. 본 연구가 교수·학습 매체로 영화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화는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 가능한 시청각 매체이다. 그래서 영화는 학습자에게 학습의 부담감을 줄여주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영화는 효율성이 높은 교수·학습 매체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영화는 시청각 요

소를 이용하여 현실 세계와 유사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간접학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셋째, 영화는 “설명적이고 요약적인 교과서보다 인간의 삶과 행복, 슬픔에 대해 정서적이고 심미적인 관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한관중 2006, 147), “인간의 자유나 평등, 정의, 인권 등을 삶과 연결시켜 다양한 관점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데 좋은 자료”(한관중 2006, 147)가 될 수 있다.[8]

4. 상업영화 <완득이>

이한 감독의 <완득이>는 청소년 문학의 베스트셀러 김려령의 원작 소설『완득이』(2008)를 각색하여 영화화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2011년 10월에 개봉되어 53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여 흥행에 성공한 작품이다. <완득이>는 김한민 감독의 <최종병기 활>(747만 명)과 강형철 감독의 <써니>(736만 명)를 뒤이어 2011년 한국영화 흥행순위 3위를 기록했다. 이 작품의 주인공 완득이(유아인 분)는 꿈추 장애를 가진 한국인 아버지(박수영 분)와 필리핀 출신의 어머니(이자스민 분) 사이에서 태어난 17살의 고등학생이다. 그의 부모는 완득이가 어렸을 때 별거하여, 완득이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아버지의 손에서 성장한다. 그는 가난, 장애, 다문화가정자녀, 대학입시 등 갖가지 문제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고등학생이다. 완득이는 담임선생님 이동주(김윤석 분)와 갈등을 일으키지만, 그의 도움으로 헤어졌던 어머니와 재회한다. 어머니와의 만남은 완득이의 자아정체성 찾기에 있어 시발점을 제공한다. 이동주 선생님은 완득이의 멘토로 완득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도록 지속적으로 도와준다. 한편 이동주 선생님은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를 돕는 일을 한다. 그런데 아이로니컬하게도 담임 선생님의 아버지는 악덕 기업체의 사장으로 이주노동자를 착취한다. 완득이는 정유하(강별 분)를 여자 친구로 사귀게 되고, 이동주 선생님은 이웃 화가 아저씨(김상호 분)의 여동생 효정(박효주 분)과 사랑에 빠진다. 완득이는 필리핀 어머니를 만나는 것을 처음에는 매우 어색해 하나, 차츰 어머니와의 사이를 좁혀간다. 이동주 선생님은 완득이의 아버지에게 동업으로 댄스교습소를 열 것을 제안하고,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세상에서 소외된 채 외톨이로 지냈던 완득이는 가족의 재결합으로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오려는 힘찬 의지를 보인다. 이한 감독의 <완득이>는 가난, 장애, 다문화가정자녀,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결손 가정 등에 대해 편견에 사로잡힌 우리 사회의 시선을 되돌아보게 하는 영화이다.

5. 고등학생용 사회통합을 위한 상호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세계화 globalization 또는 국제화 internationalization는 현대사회에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추세이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는 상호의존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이유로 국경이란 공간적 경계를 허무는 국제 이민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 결과 지구 곳곳에서 인종적, 언어적, 종교적, 문화적 다양성을 보이는 사회·문화공동체들이 출현하고 있다. 그런 사회·문화공동체에서는 넓은 의미에서의 '문화 차이 cultural difference'로 인해 크고 작은 사회문화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다름'과 '낯섦'을 수용하여 문화긴장과 문화갈등을 극복하고, 조화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위해 사회통합을 이룩하려는 노력은 이제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닌 시대적 과업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해 다문화에 관련된 담론이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때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것이 상호문화교육의 중요성이다.

상호문화교육은 다른 문화권의 구성원들에 대한 차별,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그들을 열린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는 감수성과 태도를 배양시키고, 자아정체성을 함양하고, 상대방의 고유문화를 인정하고, 세계시민적 소양을 기르는 교육이다. 그래서 상호문화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문화사회의 서로 다른 문화집단들 또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개인들이 대화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과 연대감을 끌어내어 서로 공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즉 상호문화교육은 한편으로는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문화와 문화 사이의 접촉과 교류 및 상호작용을 강조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갈등이 발생할 시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교육학적 접근이다. 이런 의미에서 상호문화교육은 문화들을 단순히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접촉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해결을 위한 행위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이다(장한업 역 2012, 34 참고).[9] 따라서 상호문화교육은 학습자에게 타문화를 단순히 이해시키는 차원을 넘어서, 타자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책임의식과 그에 합당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상호문화 감수성 intercultural sensitivity'을 훈련하는 교육이다. 요약하면, 상호문화교육은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문화들 간의 만남과 교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장과 갈등에 대처할 수 있는 행동 역량을 키워 공생 symbiosis에 가치를 두는 교육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상호문화교육의 초점은 문화들 또는 다른 문화권의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교류와 상호이해와 상호작용과 상호양보와 상호합의를 통해 새로운 공통의 합일점을 찾는 데 맞춰진다(진상범, 김형민 2014, 12-13 참고).[4]

고등학생용 사회통합을 위한 상호문화교육은 연구자 혹은 교수자 혹은 학습자에 따라, 예를 들어 자아정체성, 인권, 반편견, 다양성, 평등, 정의, 시민성, 문화 창조성 등 다양한 교수·학습 목표를 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정체성과 인권을 교수·학습 목표로 정하고, 영화 <완득이>를 활용하여 그에 대한 상호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5.1 자아정체성

한국어 '자아정체성'은 영어로는 self-identity 혹은 ego-identity이며, 독일어로는 Selbstidentität이다. 자아정체성이란 용어는 '자아'와 '정체성'이란 두 개념의 결합형이다. '자아'는 자신이 자연이나 타자를 포함하는 대상의 세계와 구별된다고 인식하는 주체이며, '정체성'은 어떤 존재를 그 자체로 인식하게 해주는 본질적인 성질이다. 그래서 '자아정체성'은 "각 개인이 자신의 개인적·사회적인 삶 속에서 자신의 역할, 자신의 삶의 목표, 타자와의 관계에 대해 얼마만큼 적절하면서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배상식, 2012:169)와 깊은 연관성을 맺는다.[10] 이런 의미에서 바라볼 때, '자아정체성'은 한 개인이 자존감을 기반으로 자신을 타자와 구별하여 고유하고 독자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주관적 판단이다. 이와 같은 주관적 판단에 근거하여 성숙하고 바람직한 개인은 사회공동체에 적절한 행동을 스스로 결정한다.

다문화사회의 원활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이 자신이 처한 사회상황에 잘 적응하면서 소위 '사회적으로 유능한 인물 socially competent person'로 성장하여 사회를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이때 사회구성원이 갖춰야 할 능력 중의 하나로 타인과의 상호교류·상호소통·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와 같은 대인관계 관리 능력의 함양을 위해 사회구성원은 먼저 자신에 대한 균형 잡힌 긍정적인 태도와 타인에 대한 존중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자아상과 타인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통해 자아정체성이 확립된다. 이런 시각에서 고등학생용 자아정체성 상호문화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 <완득이>를 활용한 자아정체성 상호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실례와 수업 시 학습자에게 제공할 개인학습지 및 모둠학습지의 실례를 제시한다.

[표 2] 자아정체성 상호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교수·학습 계획안

[Table 2] Teaching-Learning Plan of Intercultural Educational Program for Self-Identity

수업주제	<완득이>를 활용한 자아정체성 상호문화교육			시간
활동내용	·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가정자녀의 자아정체성('나는 누구인가?')			45분
학습목표	· 상업영화 <완득이>를 보고 다문화가정자녀의 자아정체성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 · 주변에서 직접 목격하거나 간접적으로 알게 된 다문화가정자녀의 자아정체성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 · 다문화가정자녀의 소외감, 상실감, 박탈감 등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 '나'와 '타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타인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다.			
학습단계	학습내용(♠) 및 학습방법(♥)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사항(◆)	학습시간
도입	♠ 교사의 설명 ♥ 일제학습	·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가정자녀가 자아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사례를 확인한다. · 타문화권에서 한국인 이주자들이 자아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사례를 확인한다. · 주변의 다문화가정자녀 또는 대중매체가 보도한 다문화가정자녀가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알아본다. · 다문화가정자녀가 자아정체성을 확립한 성공 사례를 조사한다. · 한국 사회에 살아가는 다문화가정자녀의 통계자료를 연도별로 확인한다.	♣ 다문화가정자녀가 한국 사회에서 겪는 자아정체성 혼란에 관한 인터뷰 자료 ♣ ppt자료(다문화가정자녀의 정체성 혼란에 관련된 사례를 중심으로) ◆ 학습자가 다문화가정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5분
전개1	♠ 교사의 설명 ♥ 일제학습	· <완득이>의 줄거리를 소개한다. · <완득이>에서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을 설명한다. · 영화 <완득이>와 소설 『완득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한다. · 영화 <완득이>와 소설 『완득이』를 예로 하여 영상텍스트의 서사구조와 문자텍스트의 서사구조를 비교한다.	◆ 두 매체(영상텍스트와 문자텍스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 ppt 자료(영상텍스트 장면의 캡처와 문자텍스트의 인용으로) ◆ 매체에 따른 서사구조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8분
전개2	♠ 동영상보기 ♥ 일제학습	· <완득이>를 보여준다. · 교사는 동영상 시청 중간 완득이가 자아정체성을 찾아가는 관련 장면에서 학습자의 주관적인 견해를 밝히도록 유도한다. - "완득이가 어렸을 때, 그는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는가?" - "고등학생으로서의 완득이는 어떤 학생인가?"	♣ 개인학습지(내용 이해 및 내용 추론과 관련된) ◆ 동영상 시청은 전체 줄거리의 흐름이 끊기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장면을 건너뛴다.	17분

		- "동주 선생님이 완득이에게 어머니의 존재를 알려주었을 때, 완득이의 반응은?" - "완득이의 어머니가 완득이를 만나기 위해 옥탑방으로 찾아왔을 때, 완득이의 반응은?" - "완득이가 이웃 집 아저씨에게 폭력을 휘두른 이유는?" - "신발가게 주인이 완득이와 완득이의 어머니 사이의 관계를 물었을 때, 완득이의 대답은?" - "완득이의 폭력성에 대한 킥복싱 관장의 반응은?" - "완득이가 킥복싱을 배우고자 하자, 아버지의 반응은?" - "완득이가 미술시간에 밀레의 <이삭줍는 여인들>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 "완득이와 아버지의 갈등이 해소되는 장면은?" - "아버지는 춤을 통해, 완득이는 킥복싱을 통해 궁극적으로 찾고자 하는 것은?" - "완득이가 어머니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장면은?" - "완득이, 아버지, 어머니, 민구 삼촌이 함께 모여 살 것을 암시하는 장면은?" - "완득이가 킥복싱 시험 날 어머니의 문자 메시지를 보고 보인 반응은?"		
전개3	♠ 모둠토의 ♥ 모둠학습	· 학습자는 동영상에 나타난 자아정체성의 혼란 및 자아정체성 찾기 관련 내용을 모둠별로 이야기 하고, 모둠 학습지에 기록한다.	♣ 모둠학습지(자아정체성의 혼란 및 자아정체성 찾기와 관련된)	5분
전개4	♠ 교사의 설명 ♥ 일제학습	· 특정 동영상 장면을 재시청하면서 모둠학습지의 적절성을 확인한다. · 교사는 다문화가정자녀와 결혼이주여성, 사회적 소수자가 겪는 자아정체성의 혼란이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이해시킨다.	♣ 주제와 관련된 신문기사, 사진 등	5분
정리	♠ 모둠별 발표 ♥ 일제학습	· 잘된 모둠학습지를 하나 뽑아 발표를 시킨다. ·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 사회경제적 소수자가 겪는 자아정체성의 혼란을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 다문화가정자녀가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에 잘 적응한 사례를 보여준다.		5분

개인학습지

[개인학습지]

__학년 __반 이름: _____

질문	대답
1. 완득이는 어렸을 때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는가?	
2. 완득이는 어떤 유형의 고등학생인가?	
3. 동주 선생님이 완득이에게 어머니의 존재를 알려준다. 이때 완득이의 반응은?	
4. 완득이의 어머니가 완득이를 만나기 위해 옥탑방으로 찾아온다. 이때 완득이의 반응은?	
5. 완득이는 어머니가 놓고 간 편지를 읽는다. 이때 완득이의 심정은 어땠을까?	
6. 완득이는 이웃 집 아저씨에게 폭력을 휘두른다. 그 이유는?	
7. 신발가게 주인이 완득이와 완득이의 어머니 사이의 관계를 궁금해 한다. 이때 완득이의 대답은?	
8. 시외버스 대합실에서 완득이와 어머니는 포옹을 한다. 이 장면은 무엇을 암시할까?	
9. 킥복싱 관장은 스파링에서 완득이의 폭력성을 본다. 관장의 반응은?	
10. 완득이는 킥복싱을 배우기로 마음을 먹는다. 이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은?	
11. 완득이는 미술시간에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들>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때 미술 선생님의 반응은?	
12. 완득이와 아버지는 킥복싱 배우는 것과 관련하여 갈등을 빚는다. 이 갈등이 어떻게 해소되는가?	
13. 아버지는 춤을 통해, 완득이는 킥복싱을 통해 궁극적으로 찾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14. 완득이가 어머니를 언제부터 온전히 받아들였을까?	
15. 완득이, 아버지, 어머니, 친구 삼촌이 함께 모여 살 것을 암시하는 장면은?	
16. 완득이는 킥복싱 시합 날 어머니의 문자 메시지를 받는다. 그때 완득이가 보인 반응은?	

⇒ <완득이>의 어떤 장면이 자아정체성의 혼란 및 자아정체성 찾기와 관련되는가?

①

②

③

.....

모둠학습지

[모둠학습지]

__학년 __반 모둠이름: _____

1. 영화 <완득이>에서 완득이의 자아정체성과 관련된 장면을 찾아보세요. 찾은 이유에 대해서 모둠별로 이야기해 보세요.

2. 다문화가정자녀가 겪는 자아정체성 혼란의 사례를 주변에서 직접 목격한 경험을 모둠별로 이야기해 보세요. 또는 다문화가정자녀가 겪는 자아정체성 혼란의 사례를 보도한 대중매체의 기사내용을 조사하여 발표해 보세요.

3. 다문화가정자녀가 겪는 자아정체성의 혼란을 막기 위해 어떤 방안이 있는 지에 대해 모둠별로 이야기해 본 후 발표해 보세요.

4. 영화 <완득이>에서 완득이가 자아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모둠별로 이야기해 보세요.

5. 영화 <완득이>에서 완득이가 동주 선생님께서부터 필리핀 출신의 어머니 존재를 알게 된다. 이때 완득이가 어떤 내적 갈등과 혼란을 가졌는지에 대해 모둠별로 토론해 보세요.

6. 영화 <완득이>에서 완득이는 인도에서 온 외국인 이주노동자 핫산의 소개로 킥복싱에 입문하게 된다. ‘자아정체성 찾기’란 시각에서 완득이와 킥복싱의 관계를 모둠별로 토론해 보세요.

7. 영화 <완득이>에서 완득이의 어머니는 완득이를 보기 위해 옥탑방으로 찾아온다. 완득이는 처음 만나거나 다름없는 어머니에게 큰 반감을 보이지 않는다. 완득이의 ‘자아정체성 찾기’란 시각에서 이와 같은 만남을 모둠별로 해석해 보세요.

8. 영화 <완득이>에서 완득이와 어머니는 시외버스 대합실에서 포옹을 한다. 완득이의 '자아정체성 찾기'란 시각에서 이와 같은 포옹을 모둠별로 해석해 보세요.

9. 영화 <완득이>에서 완득이, 아버지, 민구 삼촌이 같이 찍은 사진에 어머니의 사진을 겹친 장면이 나온다. 이 장면이 관객에서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지를 모둠별로 토론해 보세요.

10. 영화 <완득이>는 완득이가 키큰날 어머니로부터 응원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활짝 웃으며 힘차게 발차기를 하는 장면으로 끝을 맺는다. 이 장면을 완득이의 '자아정체성 찾기'란 시각에서 해석해 보세요.

5.2 인권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총회가 채택한 세계인권선언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의 전문에 따르면, '인권 human rights'은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 the inherent dignity and of the equal and inalienable rights of all members of the human family"이다. 따라서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누리는 보편적인 권리'이자, '인간의 인간다움을 향유하게 해 주는 권리'이다. 본 연구는 인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요구되는 생태적 권리이며, 모든 인류 구성원이 성별, 나이,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언어, 사회적 지위, 경제능력, 문화적 배경 등에 상관없이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평등하게 소유하고 행사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는 오늘날 다양한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언어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동일 공간에서 공존하는 다문화사회에서 살고 있다. 그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인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교육계는 여러 교수-학습 과정에서 인권교육 human rights

education을 실시하고 있다. 국제연합 인권최고대표사무소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는 1997년 10월 20일 제시한 '국가별 인권교육 실행계획을 위한 지침 Guidelines for national plans of action for human rights education'에서 인권교육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인권교육은 (a)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고, (b) 인격과 인간 존엄성의 완전한 발전을 추구하고, (c) 모든 국가, 선주민, 인종집단, 국가집단, 민족집단, 종교집단 및 언어집단 간의 이해, 관용, 성 평등, 우호관계 등을 증진하고, (d)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운 사회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e)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의 전달 및 태도의 형성을 통한 보편적인 인권문화의 건설을 목표로 학습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려는 교수-학습활동이다." 간단히 말해, 인권교육은 학습자가 인권에 대한 지식과 기술과 가치를 알고 이해하며, 인권을 행사하고,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아래에서 <완득이>를 활용한 인권 상호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실례와 수업 시 학습자에게 제공할 개인학습지 및 모둠학습지의 실례를 제시한다.

[표 3] 인권 상호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교수-학습 계획안

[Table 3] Teaching-Learning Plan of Intercultural Educational Program for Human Rights

수업주제	<완득이>를 활용한 인권 상호문화교육			시간
활동내용	·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 사회의 편견으로 유발된 인권침해 또는 인권유린 ·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편견으로 유발된 인권침해 또는 인권유린 · 장애인에 대한 한국 사회의 편견으로 유발된 인권침해 또는 인권유린			45분
학습목표	· 상업영화 <완득이>를 보고 사회적 소수자가 한국 사회에서 겪는 인권침해 또는 인권유린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인권침해 또는 인권유린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 이주노동자가 한국 사회에서 겪는 인권침해 또는 인권유린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 장애인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인권침해 또는 인권유린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 한국 사회에서 되풀이 되는 가난의 대물림, 다문화가정자녀의 소외감과 상실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학습단계	학습내용(♠) 및 학습방법(♥)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사항(♦)	학습시간
도입	♠ 교사의 설명 ♥ 일제학습	·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가정 구성원에게 가해지는 인권침해 또는 인권유린의 사례를 확인한다. · 한국 사회에서 신체장애인, 지적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인권침해 또	♣ 사회적 소수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당한 인권침해 또는 인권유린에 관한 인터뷰 자료	5분

		는 인권유린의 사례를 확인한다. · 한국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인권침해 또는 인권유린의 사례를 확인한다. ·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처한 현실, 그들의 인권이 무시되는 현실, 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 빚어지는 현실을 확인한다. ·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확인한다.	♣ ppt자료(결혼이주자, 이주노동자,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 학습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전개1	♠ 교사의 설명 ♥ 일제학습	· <완득이>의 줄거리를 소개한다. · <완득이>에서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을 설명한다. · 영화 <완득이>와 소설 『완득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한다.	♣ ppt 자료(영상텍스트 장면의 캡처와 문자텍스트의 인용으로) ◆ 두 매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3분
전개2	♠ 동영상보기 ♥ 일제학습	· <완득이>를 보여준다. · 교사는 동영상 시청 중간 인권 관련 장면에서 학습자의 주관적인 견해를 밝히도록 유도한다. · “완득이의 가족구성원이 어떤 사회계층(social class)에 속할까?” · “동주 선생님은 완득이의 멘토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 “동주 선생님을 타자에 대해 절대적인 환대를 보여주는 인물의 전형으로 평가하는 근거는?” · “주류문화집단의 무지 또는 무관심으로 인해 다문화가정 구성원 또는 사회적 약자가 사회적 폄하를 당하는 장면은?” · “동주 선생님과 그의 아버지의 관계가 아이로니컬한 이유는?” · “국제결혼의 부정적인 실상을 그리는 장면은?(완득이의 어머니를 사례로)” · “완득이의 자아 찾기 출발점은?” · “완득이가 어머니의 존재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시점은?” · “완득이와 아버지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갈등이 해소되는 장면은?” · “완득이가 성장하는데 멘토 역할을 수행한 등장인물들은?”	♣ 개인학습지(내용 이해 및 내용 추론과 관련된) ◆ 동영상 시청은 전체 줄거리의 흐름이 끊기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장면을 건너뛰다.	22분

		- “다문화가정, 결손가정, 저소득층 가정, 사회적 소외계층 가정에서 성장한 완득이가 었나가지 않은 이유는?”		
전개3	♠ 모듬토의 ♥ 모듬학습	· 학습자는 동영상에 나타난 인권 관련 내용에 대해 모듬별로 이야기 하고, 모듬학습지에 기록한다.	♣ 모듬학습지(인권과 관련된)	5분
전개4	♠ 교사의 설명 ♥ 일제학습	· 특정 동영상 장면을 재시청하면서 모듬학습지의 적절성을 확인한다. · 교사는 사회적 소수자, 특히 결혼 이주여성, 다문화가정자녀, 이주노동자, 장애인 등에게 가해지는 인권침해 또는 인권유린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이해시킨다.	♣ 주제와 관련된 신문기사, 사진 등	5분
정리	♠ 모듬별 발표 ♥ 일제학습	· 잘된 모듬학습지를 하나 뽑아 발표를 시킨다. ·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 사회적 소수자에게 가해지는 인권침해 또는 인권유린을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5분

개인학습지

[개인학습지]	
__학년 __반 이름: _____	
질문	대답
1. 주인공 완득이의 가족구성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들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사회계층에 속하는가?	
2. 완득이의 멘토인 동주 선생님은 완득이를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하는가?	
3. 동주 선생님을 타자에 대해 절대적인 환대를 보여주는 인물의 전형으로 평가하는 근거가 되는 장면은?	
4. 주류문화집단의 무지 또는 무관심으로 인해 다문화가정 구성원 또는 사회적 약자가 이유 없이 사회적 편해를 당하는 장면은?	
5. 사회정의의 실천가 동주 선생님과 이주노동자의 악덕 고용주 동주 선생님의 아버지는 아이로니컬한 부자관계이다. 이런 부자관계의 설정은 관객에게 어떤 극적 효과를 줄까?	
6. 완득이 부모의 결혼과정은 국제결혼의 부정적인 실상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한 실례이다. 그들의 결혼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7. 완득이의 자아정체성 찾기는 어느 장면에서 시작되는가?	
8. 완득이는 어느 장면에서 어머니의 존재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가?	
9. 완득이와 아버지 사이의 갈등이 어느 장면에서 해소되기 시작하는가?	

10. 완득이가 성장하는데 멘토의 역할을 수행한 등장인물들은?	
11. 완득이는 다문화가정, 결손가정, 저소득층 가정, 사회적 소외계층 가정에서 성장하지만, 엇나가지 않고 올바른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 <완득이>의 어떤 장면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또는 인권유린과 관련되는가?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

모둠학습지

[모둠학습지]
__학년 __반 모둠이름: _____
1. <완득이>에서 찾아낸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자녀,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또는 인권유린의 장면들에 대해 모둠별로 이야기해 보세요. 찾은 이유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해 보세요.
2.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자녀,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또는 인권유린의 사례를 주변에서 직접 목격한 경험을 모둠별로 이야기해 보세요. 또는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자녀,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또는 인권유린의 사례를 보도한 대중매체의 기사내용을 조사하여 발표해 보세요.
3.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자녀,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또는 인권유린을 막기 위해 어떤 방안이 있는 지에 대해 모둠별로 이야기해 본 후 발표해 보세요.

4. 이한 감독은 <완득이>에서 시점 쇼트(point of view shot)를 많이 사용한다. 이 촬영기법으로 감독은 관객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했는지에 대해 모둠별로 이야기해 보세요.

5. 영화 <완득이>는 소설 『완득이』의 스토리를 충실하게 재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완득이>는 상업영화의 흥행을 위해 소설에 비해 어떤 부분을 더욱 강화시켰는지에 대해 모둠별로 이야기해 보세요.

6. 영화 <완득이>가 한국 사회현실의 심층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이유에 대해 모둠별로 이야기해 보세요.

7. 영화 <완득이>에서 동주 선생님은 마치 타자에 대해 절대적인 환대를 보여주는 인물의 전형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인물의 존재가 사회현실에서 가능할 지에 대해 모둠별로 토론해 보세요.

8. 이한 감독은 <완득이>의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에서 보이스 오버 내레이션(voice-over narration)을 사용한다. 이는 어떤 서사효과를 끌어내기 위함이었는지에 대해 모둠별로 이야기해 보세요.

9. 영화 <완득이>가 흥행에서 성공을 거둔 이유에 대해 모둠별로 의견을 나눠 보세요.

6. 나가는 말

한국은 1980년대 말을 기점으로 노동력 송출국가에서 노동력 유입국가로 바뀌었다. 특히 1990년대 들어 중소기업 및 3D업종은 심각한 노동력 부족 현상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런 노동력의 결손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 사회는 이주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또한 비슷한 시기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및 조선족 출신의 여성 결혼이민자가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유입은 한국 사회의 인구학적 구성을 변화시켰다. 새로운 인종과 종족집단의 등장과 더불어 타문화와 타종교의 유입은 한국 사회가 과거 수 천 년 동안 '순수혈통', '단일문화' 등 일종의 신화를 기반으로 유지할 수 있던 사회의 통합과 결속을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다.

한국은 다인종·다민족·다문화사회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의 사회적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단일민족·단일문화 사회에서 다인종·다문화 사회로의 빠른 전환과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회문화적 상황으로의 전개는 문화간장과 문화갈등, 사회구성원들의 정체성 혼란과 문화와 문화 간의 소통 부재를 유발시켰다. 이는 낯섦과 타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으로 이어졌다. 이런 사회문화적 긴장과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공동체의 물질적·정신적 풍요를 달성하고, 모든 사회집단이 조화롭고 평화롭게 공생할 수 있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를 위해 제안된 교육학적 접근이 문화와 문화 간의 소통과 교류를 중시하는 상호문화교육이다.

캐나다의 미디어 이론가 마셜 맥루한 Marshall McLuhan(1911-1980)은 1964년에 출간된 『미디어의 이해. 인간의 확장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s of Man』에서 오늘날까지도 꾸준히 회자되는 “매체는 메시지이다 The medium is the message”란 표현을 사용했다. 그의 지적처럼 매체는 인간의 의식구조와 의사소통 양식은 물론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를 결정짓는다. 이는 특히 20세기 말 디지털 기술혁명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은 지식·정보화시대에는 문자매체를 중심으로 한 아날로그 문명에서 영상매체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문명으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음을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매체 문명의 전환은 교육현장에서도 예외는 될 수 없다. 많은 학습주체가 아날로그 방식의 문자보다는 디지털 방식의 영상 매체에 보다 친밀하기 때문이다. 이에 발맞춰 상호문화교육을 실시할 때 교수·학습 수단으로 디지털 영상매체를 활용하려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급부상하고 있다.

한국적 다문화상황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상호문화교육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디지털 혁명으로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한 21세기에 디지털 영상매체는 상호문화교육의 효율적인 교수·학습 매체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그래서 디지털 영상매체를 활용한 상호문화교육의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평화롭고 조화롭게 공생할 수 있는 다문화사회의 건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디지털 신호에 기반을 둔 영화, 애니메이션, TV 드라마 등의 서사텍스트를 상호문화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언급해야 할 사항이 있다. 디지털 영상매체를 활용하여 상호문화교육의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작업은 교수자에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한다. 이는 디지털 영상매체를 활용한 상호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 하나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디지털 영상매체를 활용한 상호문화교육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와 교수자도 자신이 직접 만든 모델과 교수·학습 계획안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연구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의 부재로 인해 연구 노력의 효율성 문제가 제기된다 하겠다. 따라서 교수자들이 개발된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서로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한다면, 수업 준비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사회통합을 위한 상호문화교육을 교육현장에 보다 효율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References

- [1] Castles, S., & Miller, M. J. 2009.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 [2] United Nations. (2016). *International migration report 2015:(Highlights)*.
- [3] Ministry of Justice. (2014). *Korea Immigration Service 2014.6*.
URL: http://www.immigration.go.kr/doc_html/attach/imm/f2016//20160127246667_4_1.hwp.files/Sections1.html.
- [4] Chin, S. B., & Kim, H. M. (2014). Theoretical Review of Needs for the Development of Teaching and Learning Program of Intercultural Education Utilizing Digital Image Media and Game Contents. *Korean Society for Computer Game*, 27(1), 9-17.
- [5] Tschong, Y. K. (2003). Spielfilm und Pädagogik im Zeitalter der digitalen Kulturindustrie. *Anthropology of Education*, 6(2), 205-224.
- [6] Kim, H. M. & Cho, C. H. (2014). Social Integration Plan in the Multicultural Society. Review of Needs for the Development of Teaching and Learning Program of Intercultural Education Utilizing Digital Image Media, *Korean Comparative Government Review*, 18(2), pp. 267-288.
- [7] Lee, J. H. (2004). The Ethics Educational Implication of an Image Learning Media in Moral Education, *Asian Journal of Education*, 5(1), pp. 197-219.
- [8] Han, K. J. (2006). The Use of Cinema for the teaching of multicultural in social Studies. *Social studies education*, 13(3), 147-166.
- [9] Gilles, V. (2001). *La société interculturelle. Vivre la diversité humaine*. Paris: Seuil. (H. U. Jang trans.) Kyoyookbook, Paju. 2012
- [10] Sang-Sik Bae. (2012) A Study on the Self-Identity Problem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al Society*, 122, 161-189.

